

“원불교의 개혁사상”에 대한 논평

양 은 웅

(원광대학교)

I

新宗教運動은 본질적으로 근대사회의 변혁 속에서 일어난 종교운동이다. 한국에서는 水雲(崔濟愚, 1824-1864)의 東學 창시(1860)를 기점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인데, 一夫(金恒, 1826-1898)의 靈歌舞蹈敎(1881)가 『正易』이라는 변혁(易)원리에 바탕한 것처럼, 시대사회의 변화에 卽應한 민중자각운동으로 출발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종교는 民衆宗教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이러한 한국신종교의 변혁사조를 흔히 開闢思想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종교가의 교설이나 전개된 시기에 따라 그 성격도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이 사상은 각 신종교 교단의 교의사상, 즉 구세이념의 체계를 규정하는 성격을 지니는 셈이다. 金正冠교수의 「원불교의 개혁사상」은 이러한 개혁사상을 통해 원불교 교의의 성격을 밝혀나가고 있다.

II

김교수는 주제를 원불교의 개창조 少太山(朴重彬, 1891-1943)의 구세이념에 나타나는 개혁사상에 중점을 둬으로써, 「소태산의 개혁사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를

시대인식과 구세이념의 주체라는 두 측면에서 접근한다.

시대인식은 수운 - 龜山(姜一淳, 1871-1909)으로 이어지는 근대 선지자들의 후천 개혁사상의 흐름이다. 그리고 구세이념의 주체는 釋尊에 연원하여 佛法을 주체삼 으면서도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의 개혁의지로 파악한다.

아울러 소태산의 종교운동을 병든 사회의 혁세방안과 미래세계의 전망으로 본다. 혁세방안은 개혁사상에 바탕한 종교운동을 말한다. 또한 미래세계의 전망은 크게 밝은 세상, 상생과 균등의 세계, 인간존중의 세계, 그리고 종교간의 융통과 만남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III

이와같은 파악은 요령을 얻은 것으로 사료되며, 결론에 대해서도 동감하는 바이다. 그런데, 근대한국의 종교운동이 시대인식과 민족 내지 국가관으로 표출되는 점을 중시해 볼 때, 일제시대에 있어서 소태산이 이 국토와 민족을 어떻게 개혁시키려고 했던가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접근이 요망된다.

소태산은 일제시대에 도탄에 빠진 민족을 향하여,

“조선은 開明이 되면서부터 생활 제도가 많이 개량되었고, 완고하던 지전도 많이 열리었으나, 아직도 미비한 점은 앞으로 더욱 발전을 보게 되려니와, 정신적 방면으로는 장차 세계 여러나라 가운데 제일 가는 지도국이 될 것이니, 지금 이 나라는 점진적으로 魚變成龍이 되어가고 있나니라”(『대종경』 전망품23).

는 한국미래관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 내지 국가관이 개혁사상에 바탕한 혁세이념으로 제기됨직하다.

그리고 신종교운동을 전개하면서 그 주체를 불교에 두고 있는 점은 주목을 요하는 대목이다. 그는,

“佛法은 천하의 큰 도라 함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며 인과의 이

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나니라(『대종경』 서품 4)”

고 설파한다. 따라서 변혁의 시기에 불법을 선양하려는 그의 본지가 무엇인가 밝혀져야 한다는 말이다.

IV

그렇다면, 개혁사상으로 본 원불교 교의의 특색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수운에서 비롯되는 개혁사상은 증산에 이르러 解怨相生思想으로, 그리고 소태산에 이르면 恩思想으로 특징이여진다. 이 은사상은 소태산의 大覺(1916)에 의해 개현된 세계상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흔히 「一圓卽四恩」으로 불린다.

이는 석존의 正覺에 의해 개현된 세계상이 緣起로 표현된 것에 대비되어 마땅하다고 본다. 불교를 사상적 축으로 전개되는 원불교 교의에 있어서 중심교리를 이루는 은사상은 연기사상의 현대적 전개라는 말로 풀이해도 좋을 듯 싶다. 이렇게 본다면, 김교수가 파악한 시대인식과 구세이념은 은사상으로 만나게 되며, 따라서 은사상을 원불교 개혁사상의 축으로 강조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